



들꽃편지 651

2023.4.20.곡우
<https://cyw.pe.kr>

진짜라는 증거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 설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19:1)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행19:2)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심령을 찢어서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같은 설교로는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배시간 내내 탄생각을 하거나 졸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부린 씨’처럼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사단이 주워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진짜 진짜가 되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本无是非(분무시비)
본래 옳고 그름이 없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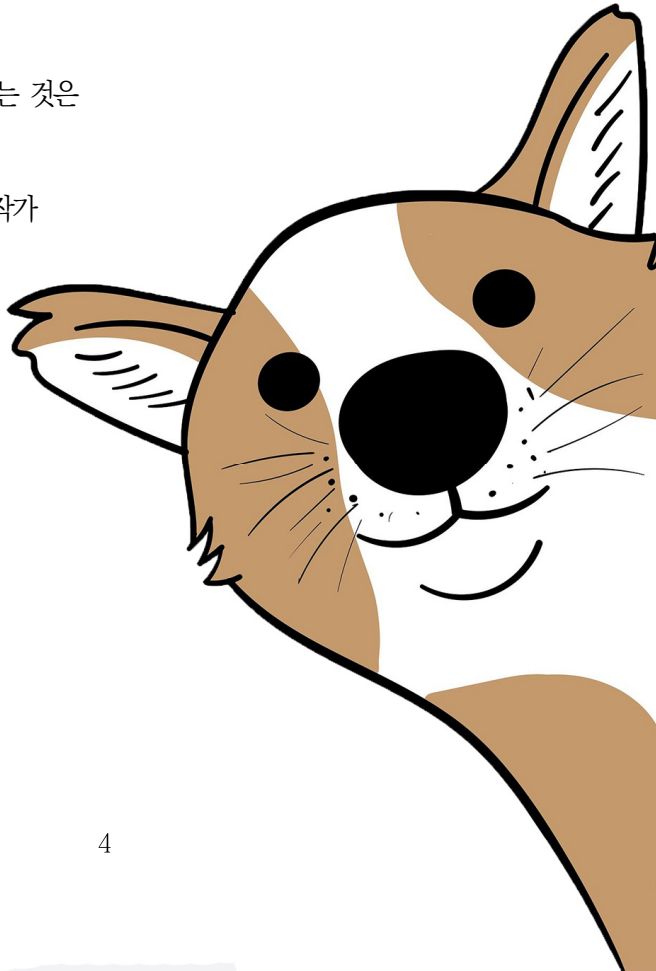
글씨/ 예장 이준우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이 사실은 사람에게 따라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고마움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나를 결정짓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42 나보다 목회 잘하나 보자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보름 전부터 계속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여 여쭙보았더니 임기가 만료되어 곧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면서 새로 오는 후임자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마무리 하느라고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면 어영부영하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전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그랬고 20년 목회 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비워 주어야 하는 할 때도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후임자가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나오고 말았습니다.

후임자에게 교회 교인이나 예배 그리고 동네의 흐름까지 상세히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2018년 12월30일 주일 예배 드린 후 다음날인 월요일날 훌쩍 떠나 오면서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보다 목회 잘하나 보자.”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토저 마이티 시리즈 23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72쪽 11,700원 규장 2016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1. 성경을 내게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 한 가지는 성경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내 개인적인 지식과 관점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경우입니다. 대개의 경우 손을 뻗어 성경을 잡아 끌어내립니다. 특히 '큐티'(Quiet Time)를 하면서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을 내 삶의 형편과 지적 수준에 맞추어 내 손아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가 성경에게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 다른 한 가지는 내 개인적인 지식과 관점을 버리고 나를 성경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경우입니다. 성경이 주는 '심리적 만족'을 거부하고 성경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불편함을 '고상한 불만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습니다.

3. 성경이 말하는 삶

오늘 나와 내가 속한 교회와 기독교 모임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은 성경에 나오는 모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위기와, 성경에 나오는 종교의식과 똑같은 것 인가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임에는 무엇인가가 섞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모임도 아니고, 그런 삶도 아닌 것 같습니다.

4. 다른 차원

교회에서 ‘부활절 천국 잔치’를 하는 그 모임 한가운데 앉아서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로 천국에서 이렇게 잔치를 연다면 아무리 천국이라도 가고 싶지가 않다’ 분명히 ‘천국 잔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진짜 잔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5. 준비는 끝났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하거나, 은사를 체험 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청하거나, 헬라이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꽃이 필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겨울나무’처럼 아직 환경이 춥기에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6. 찬양집회

나는 인도자들이 방방 뛰면서 사람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찬양집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나긋나긋한 모습으로 춤을 추고 감정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는 찬양집회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주려는 방법입니다.

7. 기독교 세미나

나는 ‘전도 노하우’ ‘성경 노하우’ ‘교회 성장 노하우’같은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마치 홍수처럼 모든 것이 모두에게 열린 시대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실천’을 안 해서 안 되는 시대입니다.

8. 지적 단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지적(知的)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탐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지식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만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9. 신학적 단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두 번째 단계는 ‘신학적(神學的) 단계’입니다. 신학은 진리를 체계화하여 ‘교리’로 만들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줍니다. 문제는 신학이 인간의 선입견에 따라 ‘조직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 주의냐 침례냐, 세례냐 자꾸 뭘 선택하라고 합니다.

10. 신비적 단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세번째 단계는 ‘신비적(神祕的)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지성적

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인식의 신비적 단계는 무지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1. 부활의 권능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부활의 권능’에서 나왔습니다.(빌3:10-1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주입되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2. 고난에 참여함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그 고난에 참여함’에서 나왔습니다.(빌3:10-1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들 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한 고난도 당당하게 받음으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고난의 동질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13.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에서 나왔습니다.(빌 3:10-1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또다시 죄를 짓게 하는 자아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4. 장벽을 허물기

오늘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차단의 장벽을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런저런 잡다하고 자질구레한 활동과 행사와 도구와 요령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곳에 과도하게 열정적입니다.

15. 신학과 임재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고 신학자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문은 우리의 하나님 인식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출중한 학자라도 성령 체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평신도보다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16. 믿지 말 것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 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가지 뿐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다. 성령님의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고 이단입니다.

17. 당나귀 신앙

‘목마르지 않은 당나귀를 물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신학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고집 센 당나귀처럼 스스로 목마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18. 진짜 믿음은

믿음은 이를 악물고 만들어 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믿음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19. 종교의 자유

인터넷과 핸드폰이 일상화된 이 시대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 교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복음이 오해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 기독교의 부흥

과거 세대와 비교하면 이 시대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들고 세계의 오지들로 찾아 나선 시대라면 지금은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적절한 방법만 연구된다면 순식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

〈독서일기〉 책을 읽으면서 한 챕터를 200자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요약하거나, 제 말로 바꾸어서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쓴 것입니다. -최용우

입과 귀

입과 귀
입은 왜
'입'이지요?
'입'하고
입을 다물라는 거지

귀는 왜
'귀'지요?
'귀'하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지.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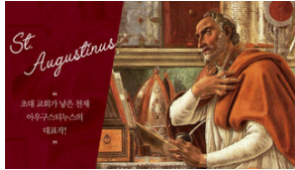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최용우/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인 이유는, 한마디 말을 하면 두 마디를 들으라고 귀가 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입'과 '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하고 발음을 하면 입이 딱 붙어버리잖아요. 입을 다물라고 '입'입니다. '귀'하고 발음을 하면 입이 동그랗게 열립니다. 귀를 열고 들으라고 ^^
귀, 눈, 코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이 열립니다.
그러나 '입'만 다물어야 하는 것이라 딱 다물어줍니다.

이카펠라/ 저...정말 그렇네요. 입! 귀... 시인의 눈에만 보이는...

정령들과 천사들의 비교



244. 인간은 죽어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반드시 죽어 없어지는 존재이면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조건을 겸허하게 관찰해서 인간이 죽게 되는 삶을 사는 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인간을 기리고 칭찬하여 비록 죽는 존재이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245.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과 인간을 중개한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음을 맞기에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면서 신이기도 한 중개자를 찾아야 한다. 중개자의 행복한 죽음이 인간들을 죽어야 하는 비참함에서 영원으로 이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얻었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써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들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고, 그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상태로 이끌었다. 그분은 죽음과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여 죽지 않고 행복한 천사들에게로 이끈 게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그분은 중개자가 되기 위하여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빌2:7) 천사보다 낮은 것이 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모습으로 천사들 위에 머무셨다. 천사에서 생명이었던 분은 마찬가지로 낮은 곳에서도 생명의 길이 된 것이다.

246. 플라톤학파는 하늘의 신들이 땅 위 인간과 교류하는 것을 부정했다.

플라톤학파 아플레이우스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인 가장 높은 신을 인간의 보잘것없는 언어로는 오롯이 묘사할 수 없는 하나뿐인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칠혹 같은 어둠을 밝히는 하얀 섬광이 번쩍이듯 그렇게 겨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번쩍 빛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들이 인간을 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접촉해야만 하는데 신들이 그 만남으로 더럽혀질까? 태양과 달빛은 땅과 맞닿지만 그렇다고 땅이 빛들을 오염하지 않는다. (계속)

침묵(沈默) 2



11.생각(분심)

침묵기도를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은 ‘소리’도 아니고 ‘졸음’도 아니고 바로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5만가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가루처럼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뿌연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 먼지만큼 작은 생각의 씨앗을 ‘분심(分心)’이라고 합니다.

저는 침묵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하도 시달리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한번 다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가지 생각-만사록(萬思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만가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 1만가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침묵기도의 최대 적인 ‘생각’은 어떤 것에 달라붙으면 곧바로 착상을 하여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생각들은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어딘가에 앉을 곳을 찾아 마음속에 뚱뚱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딱 달라붙어버립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붙으면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붙으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반대로 ‘더러운 생각’에 붙으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침묵기도를 한다고 눈을 감았다가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도는 커녕 내내 그 생각에 시달리다가 끝나버립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것

입니다.(렘4:14) 그런데 마음에서 생각을 꺼내어 비워 버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음 비우는 일이 어디 쉽던가? (7423)

12. 침묵과 수행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구원’만 받으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 안의 세계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지도자들부터 문고리만 잡고 흔들면서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스님들은 평생 벽을 보는 면벽수행(面壁修行)을 하면서 삽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범에 바탕을 둔 엄격한 수행 없이는 종교인이 도달해야 할 고도의 ‘인격완성’을 이룰 수 없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은 지금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하면서 ‘고도의 인격 완성’을 하는 중인지요?

기독교에도 수행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막 교부들의 수행은 스님들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그 수행의 기본이 ‘침묵기도’이며, 침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깊이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수행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지금 너무 작고 좁고 협소하면서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침묵기도를 한다는 것은 곧 생각(분심)의 처리가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며, ‘생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일치(一致)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처리한다는 것을 ‘자아의 파쇄’라고도 하며, ‘내려놓음’ ‘순복’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7424)

13. 생각을 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은 바꾸기처럼 생겼습니다. 동양인은 그것이 심장에 있다고 보고, 서양인들은 그것이 ‘머리’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은 심장에 있고 마음 바꾸기 안에 있는 ‘생각’을 머리가 꺼내서 뇌로 인식해 주어야 비로소 생각이 ‘실체’가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실체’가 된다고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음공부’라는 것은 머리(뇌)를 조절하여 생각을 다스린다는 기(氣), 단(丹), 서양에서는 뉴-에이지 같은 것입니다. 근본이 마음 안에 있는데 근본은 그냥 두고 겉모양만 어찌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靈)’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 ‘생각’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비우고 넘는 방법이 있고, 소리를 타고 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넘는 방법은 조금 고차원적이라 많은 시간 수련을 해야 합니다.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쉽기는 하지만 강을 건너가면 배를 버려야 하듯이 생각을 넘어가면 소리를 버려야 하는데, 그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타고 생각을 넘는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먼저 찬송을 겁나게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혼을 썩 빼’ 놓습니다. 그리고 통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이용한 방법은 생각을 쉽게 잠재울 수는 있지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힘듭니다. (7425)

14. 소리에 중독된 한국 교회

기도(祈禱)는 초월적 존재인 신과의 대화 또는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자신을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침묵기도나 관상(觀想)기도 같은 형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구송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신비스러운 힘, 기운, 에너지(氣)가 있다고 믿는 것을 언령(言靈)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긍정의 힘’ 같은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기도는 언령사상에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은 ‘생각’이 소리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온통 생각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다 보니 생각에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마음에 붙어있는 생각들을 떨쳐내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분심을 비워내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통성기도 후에 더 큰 소리를 내면서 구송기도를 해버립니다. 기도가 소리를 따라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증언부언 증열증열 하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는 침묵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반주 음악’이라도 켜놓지 않으면 너무 어색해서 기도를 못할 만큼 한국 교회는 소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7426)

15. 오염된 소리가 가득한 교회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영성은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기독교도 수도원에서 흘러나온 영성의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삼위일체 구속사'는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 그 뿌리입니다.

개혁교회를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수도원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도'와 '칭의'를 문제 삼아 수도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문제점들을 새롭게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다 버림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반대 잡으려다가 추가삼간을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영성의 흐름이 끊겨 버렸고, 과거에 받았던 고인물을 500년 동안이나 우려먹고 또 우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재탕하겠죠.

전통적으로 수도원의 7훈련은 - 고독, 순종, 청빈, 침묵, 겸비, 노동, 기도와묵상입니다. 프란치스코수도원에서는 4훈련을 했는데- 청빈, 순종, 평화, 사랑입니다. 사막교부들과 대부분의 수도원 5훈련 -순종, 침묵, 청빈, 순결, 기도를 합니다. 현대의 수도원은 더 줄여서 순종, 침묵, 청빈 3훈련만 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지금 무슨 훈련을 합니까? '영성훈련'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 만드는 '제자훈련'만 합니다.

영성의 근원인 수도원에서 과거부터 빼놓지 않은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라는 제한된 방법으로는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대 교회는 더 시끄러워지고, 소리가 더 거칠어지고, 더 지저분해지고, 긍정주의에, 반공에, 전자악기에, 돈에... 이것 저것에 오염된 소리가 마치 시장바닥 같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7427)

16. 구름과 어둠과 안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400쪽짜리 책을 써 놓았습니다. 아직 출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되 대충 만나면 안 되고 '깊이' 만나라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만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만나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만나지 말고 '영'으로 만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인일치(神人一致)'의 깊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뒤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한 영성가는 '생각'을 '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름처럼 수많은 생각이 내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

다. 그것은 무지이며 그래서 <무지의 구름>입니다. 하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밝고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무명의 한 저자가 남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서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생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내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십자가 요한의 <어둔 밤>이라는 책이 서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안개처럼 앞을 가로막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저절로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앞으로 <안개는 사라지고>라는 책을 쓸 것입니다. (7428)

17.마음의 정화

마음속에 바글바글 먼지처럼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분심'을 처리하는 작업을 '정화'라고 합니다. 수도원에 있어도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시장바닥에 있는 것과 같고, 시장바닥에 있어도 마음이 정화가 되면 수도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습득적 방법'과 '주부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득적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하는데 영적 독서, 거룩한 독서, 신적 독서, 성독(聖讀) 등으로 번역됩니다. 가톨릭 수도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성경 묵상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정화시킨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습득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큐티와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묵기도를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앉으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을 그냥 두면 기도 시간 내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잡념 가운데 시달리지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도적인 한 가지 생각에 집중을 하면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주로 성경 구절을 반복하여 생각한다든지 특별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등에 업고 '생각'을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절에서는 묵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우는 방식으로 마음을 정화합니다. 개혁신회는 '발성 기도'로 생각을 비우고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는 그 생각을 따라 나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냥 생각에 머물러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7429)

18. 주님이 주도하는 기도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습득적 방법'과 '주부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부적(注賦的) 방법은 ifused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데 수동적, 무념적 방법이라고도 하며 일체의 상상력이나 도구나 이미지를 멈춘 가운데 감각적 어두움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한 마디로 주님이 주(注)가 되고 나는 부(賦)가 되는 방법이라 '주부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부적 방법'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으며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출가'라는 방법을 통해 속세를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사막으로 나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교부들, 은둔자들이 그들입니다.

침묵기도를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앉으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톨릭은 '성경 독서' 기독교는 '기도 제목'이나 '찬송'을 사용하는 것을 '습득적 방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심지어 기도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줄 아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습득적'의 반대 방법이 '주부적 방법'이며 정말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심 처리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안토니오 -십자가의 요한 -토마스 머튼으로 이어져 내려온 개혁교회 수도원의 전통적 기도 방법입니다.(7430)

19. 깊은 데로 가는 기도

지난 주간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아무개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고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약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겨우 인사만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릴 목사님의 시시콜콜한 가정사까지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은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침묵기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침묵! 그것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한다는 물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는 한없이 깊은 뜻이 담겨 있고 또 다른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낮은 물가에서 찰싹이는 기도라면, 침묵 기도는 '깊은데로 가서'(눅5:4)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영혼이 있는 곳은 고요한 가슴이며, 고요와 침묵 속에서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소리로 힘있게 말을 잘하는 달변의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영성가들은 ‘침묵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대가인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해,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변화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그분과 홀로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해줍니다.” 라고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7431)

20.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

리처드 포스터는 “책에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침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머턴은 “우리 가운데 초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첫발을 내딛지 않고 무언가가 되기란 있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에 대해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해도 실제 침묵하지 않으면 침묵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침묵은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적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묵언(默言)이라고 합니다. ‘내적 침묵’은 ‘침묵기도’라고 합니다.

<내적 침묵을 하는 방법>

- ①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 ②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곳에 간다.
- ③가능한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거나 가부좌로 앉는다.
- ④의자가 너무 편하면 안 되고 등받이가 수직인 의자가 좋다.
- ⑤손바닥이 위로 가게 펴서 무릎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 ⑥핸드폰은 완전히 끄고 다른 소리들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⑦침묵에 익숙해지면 바로 침묵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처음에는 시편16편, 23편, 100편을 천천히 읽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 ⑧심호흡을 하며 몸 전체를 릴렉스하게 이완시킨다.
- ⑨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
- ⑩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다.

실제로 ‘침묵’을 해보면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432) ©최용우



민들레 (사진:최용우)

도트^m의 민들레

파출소 뒤 콘크리트 벽 틈새에 민들레가 뿌리를 내리고 꽃 한송이 피웠다. 그 장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저 벽 틈새기에 뿌리내릴 흙이 얼마나 된다고.. 정말 대단한 민들레이다.

노아의 대홍수 때 온 천지에 물이 차오르자 모두들 도망을 갔는데 민들레만은 발이 빠지지 않아 도망을 못 가고 사나운 물결이 목까지 차오르자 두려움에 떨다가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렸다.

민들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민들레의 기도를 들어주어 그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 멀리 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 피어나게 해 주었다. 민들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디에서든 불평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르며 잘 살고 있다.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트럭 친구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우리 주차장이 ‘밭’이라며 누가 시청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은 다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버렸다.(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그게 자기 밭이라도 불법이라고 한다.)

할 수 없이 집에서 300미터 떨어진 파출소 뒤 금오빌딩 주차장에 주차를 한지 6개월이 지났다. 낮에는 빌딩에 관련된 차가 주차를 하고 밤에는 비어있어 마치 동네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곳이다.

우리 차를 주차하기 전부터 트럭 한 대가 항상 주차되어 있었는데 만약 이 트럭이 없었다면 우리 차만 그 넓은 주차장에서 덜렁 외롭게 서서 밤새 쓸쓸하게 영영을 뻘했다.

어쨌든 차도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다행이다. 내 차를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데려다주고 싶다. 차야!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포크 베이크?

코스트코에 회원증 사진 갱신하러 갔다가 갑자기 베이크가 먹고 싶어졌다. 햄버거나 튀긴 음식 종류를 끊은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내 몸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갑자기 식탐 뱀이 나를 유혹한다.

“오늘 하루만 먹어~.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 안 먹으면 되잖아~”

음..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오늘날 속세의 음식을 먹고 타락해 버리자.” 그런데 3900원짜리 ‘치킨베이크’와 ‘불고기베이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포크베이크’가 4900원이다.

접시에 담겨 나오는 포크베이크를 보고 또 놀랐다. 전에는 접시 밖에까지 나가는 몽둥이 크기였는데, 접시 안에 쏙 들어갈 만큼 크기가 아담하게 줄어들었다. 옛날 베이크 어디갔어?

물가가 너무 올랐다. 돼지고기 베이크는 내 입맛에는 살짝 안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진짜 베이크 안 사 먹을 듯.



아내가 있을 때

“아이고매~~ 먼 밥상이 날마다 황제 밥상이여.”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 항상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꺼내어 상에 짝 깔아 막 열 가지씩 된다. 그냥 젓가락이 반찬 그릇에 한 번씩만 다녀가도 밥그릇은 비고 배는 빵빵 해진다.

아내는 밥이나 반찬 남기는 것을 ‘맛이 없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반찬이나 국은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어찌고 했다가는 순식간에 밥그릇 뺏기고 밥상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무도 없는 대나무숲에 가서 해야 한다.

요즘 아내는 <7대3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채소 반찬의 개수를 막 늘리고 있는 중이다. 대신 3이라는 숫자는 단백질 비율인데... 아무리 찾아도 단백질은 1도 안 된다. 완전 10대 0밥상이고만..

그래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복 받은 일이다!



아내가 없을 때

점심이나 저녁은 나 혼자 해결하는 날이 많다. 오늘 점심은 국에 밥 한 순갈 말아서 간단하게 푹푹 먹었다. 반찬도 귀찮아서 하나도 안 꺼냈다. 반찬이 없으니 젓가락도 필요 없어서 놓지 않았다.

아침을 푸짐하게 먹었으니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커다란 냄비로 한가득 끓여 놓으면 그냥 그거 퍼서 밥 한 순갈 놓아서 랩 씌워 전자렌지에 1분 동안 돌리면 근사한 한 끼가 된다. 나는 김치찌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든 똑같이 반복해서 먹을 수 있다.

삼시세끼 아내가 차려주는 푸짐한 밥을 먹다가는 순식간에 똥땀이 돼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한두 끼 정도 대충 식사를 하기에 이 정도 몸매(?)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복 받은 일이다!



어쩔 수 없지

드디어 크롬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빨간 화면이 뜨면서 <사기성 사이트 주의>라고 하며 접속을 차단해 버리는 ‘빨간 딱지’를 떼어냈다. 구글에서 SSL 보안이 안 되어 있는 사이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맘대로 빨간딱지를 붙여버린 것이었다.

거금을 들여서 보안 사이트가 되는 서버로 이전을 하고 설정을 하였다. 그런데 도메인이 바뀌니 주소에 s가 하나가 빠졌다고 http://주소로 링크가 된 모든 페이지와 이미지가 배꼽 자랑을 한다.

20만개가 넘는 엄청난 게시물을 전부 열어 깨진 링크를 고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ㅠㅠ 그래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다.(음. 헛헛... 해탈(解脫)했다.) 다만 <지난호 보기>는 복구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복구중이다. 약 6500개다. 하루에 100개씩 65일 동안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 반복... 해탈~

16년 동안 서 있었네

매일 8천보를 걷는 산책점, 운동은 딱히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내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의식을 따르기 보단 몸을 따른다.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오늘은 동네 골목길 코너에 서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이 표지판은 우리가 이사왔을 때부터 서 있었으니 거의 16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다. 골목에서 나와 막 돌아가는 코너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차를 좌회전하기 힘들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저 코너에 주차된 차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저 표지판이 마치 ‘등대’처럼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 셈이다. 크고 화려하고 튀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조용한 삶도 괜찮을 것 같다.



12찬 반찬

아침부터 봄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아내가 '야생버섯전골'이 먹고 싶다고 하네. 여름 장마철에 비 한번 오고나면 여기저기 버섯이 막 올라오지만, 아직 세상이 허허벌판인 초봄엔 버섯이 있을 리 없잖아. 그런데 어디가서 '야생버섯전골'을 먹어? 마트에 있는 비닐하우스버섯 전골이면 몰라도...



마곡사 가는 길에 있는 '시골큰집' 식당 벽에서 '야생버섯전골' 메뉴를 보았다. 참 우리 마누라 눈도 밝고 기억력도 좋네. 인터넷 뒤져서 전화번호 알아내 전화를 했더니 "일단, 와 보슈~"

버섯이 많은 여름에 많이 파서 말려 놓았다가 4계절 어느 때든지 야생버섯전골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었다. 아하~ 그렇지, 말리는 방법이 있었네! 고걸 몰랐구만.

그런데 나는 버섯전골보다 12찬 반찬이 더 맛있었다.

30배 줌 사진

야생 길고양이는 경계심이 많아서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면 그냥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신성아파트 옹벽 아래가 영역인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하도 경계심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신성 아파트 언덕을 내려가는데 저 멀리 담 위에 고양이 두 마리가 앉아서 눈을 감고 목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서 줌으로 줌 당겨 사진을 찍었다. 100배로 당겼더니 고양이 발가락밖에 안 보여서 그냥 30배로 당겨서 찍었다.

고양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먼 거리인데도 가까이서 찍은 사진처럼 선명하다. 노이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사진이다.

눈 떠라! 너희들은 이미 다 찍혔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97회 갑하산(468m)

핸드폰 어플을 새로 세팅하다가 BAC (블랙야크)어플을 잘못해서 완전 초기화 시켜 버렸다. 그동안 등산 인증 기록이 다 사라지고 0이 되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복구시킬 방법이 없다.

그래, 뭐 그게 무슨 큰일라고.. '예수 안 믿는 것'이 큰일이지 그밖에 큰일은 없다. 그냥 1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블랙야크 인증산인 '갑하산'에 올라 첫 인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가방 둘러매고 버스를 탔다. 버스-전철-버스를 갈아타고 갑동 정류장에 내려서 삽재고개 들머리로 갑하산 인증하고 갑동 정류장으로 내려와 다시 버스-전철-버스타고 집에 돌아왔다. (2023.3.8.)



▲제598회 계룡산(관음봉766m)

반석에서 전철-버스 갈아타고 동화사입구 도착하니 오전 10시이다. 빵 두어개 사서 가방에 넣고 10시 16분 천장골 오르기 시작하여 11시 큰배재 도착 -11시 15분 남매탑 -11시45분 삼불봉 -12시30분 관음봉 -1시20분 은선폭포 - 2시 주차장 도착하여 제육복음으로 점심을 후다닥 먹고 2시 4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산행을 하기에는 화창한 최고의 날씨여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홀로 산행을 자~알~ 했다.(2028.3.16.)



▲제599회 비학산275 (일출봉252m) 2023.3.23.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곡우-물 마시러 가는 날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穀雨)’입니다. ‘곡우는 봄비(春雨)가 내려 백곡(百穀)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농사철로 접어듭니다. ‘곡우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못자리할 볍씨 담그기 따위로 바쁠 때인데, 볍씨 담그기 전날은 부정 탈까 봐 옛날에는 부부가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 공장에서 모가 길러지기 때문에 부부 잠자리 따윈 걱정 안 해도 되는 좋은 세상입니다^^

곡우 무렵엔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데 산다래, 자작나무, 박달나무에 상처 내서 흘러내리는 수액이 몸에 좋다고 해서 산 속으로 곡우 물을 마시러 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경칩의 고로쇠 물은 여자 물이라 해서 남자에게 좋고, 곡우 물은 남자 물이어서 여자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농협양곡창고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북어찜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꽃을 좋아하는 사장님이 심은 꽃 화분이 식당 입구에 놓여져 있다. 그중에 잉글리쉬 데이지꽃 사진을 표지에 모셔왔다. 태양이 뜨면 고개를 들고 태양이 지면 고개를 내린다하여 ‘태양의 눈’(Day’s Eye)에서 데이지(Daisy)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꽃말은 희망, 평화, 사랑스러움, 숨겨진 사랑, 겸손한 아름다움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편지11권 과꽃호> 506쪽 21000원 -4월10일 출간
68권 <들꽃편지10권 천인국꽃호> 504쪽 21000원 -3월13일 출간
67권 <들꽃편지9권 분꽃호> 510쪽 21100원 -2월8일 출간
66권 <들꽃편지8권 영경귀꽃호> 510쪽 21100원 -1월11일 출간
65권 <들꽃편지7권 민들레호> 510쪽 21100원 -12월14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2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3월 재정결산

2023년 3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권영국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상욱 박승현 박신혜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호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황성운 들꽃교회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9분이 1,05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4.20.일까지 7500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9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새로 나온 책

제11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1권 과꽃호
최용우 편집 506쪽 21,0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 정도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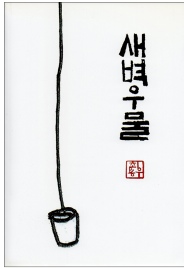
〈들꽃편지 제11권〉은 2007.1월 제456호부터 2008.11월 제478호까지 2년 동안 발행한 24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쑥타마을에 살면서 저는 교회 이름만 바꾸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보 1년분을 미리 편집하여 파일로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주보〉사역을 시작했고, 새로 바뀐 찬송가645곡의 ppt 자료를 만드는 엄청난게 지루한 일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1천여 교회가 사용한 주보 자료는 〈들꽃편지〉에 매월 똑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찬송가 파워포인트도 공씨디에 구워서 약1천여개를 전국으로 무료 발송하였습니다.

아내는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드는 〈인숙꽃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매일 만들어 전국에 퍼웠던 월간〈들꽃편지〉2년분을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새벽우물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총총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볕 1980호부터 3501호 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28,700원 878쪽 펴플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월 펴내는 큐티 목상집 월간<생명의삶+>(목상과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집입니다. 17,000원 490쪽



① 맛있는 주보+파일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보고 나서 모아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② 멋있는 주보+파일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지입니다. 주보는 교회의 문화요 거울이요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멋지고 근사한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③ 폼나는 주보+파일

디자인 주보는 시각적 효과를 눈에 각인시키지만 내용중심 주보는 지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죠. 내용 중심의 폼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④ 탐나는 주보+파일

9가지 내용이 실려 있어 누구나 탐할 만 한 알찬 주보를 교회 이름만 바꾸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1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